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은 11월 8~9일 경기도 양평 블루비스타에서 한마음 법형제회 수련회 '공생으로 한마음되는 법형제'를 개최했다.



회원들은 촛불제에서 '자성본래불' 정근을 하며 각자의 마음자리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장의 특강에서 법형제 회원들이 짝을 이루어 마음치유와 소통을 위한 체계를 하고 있다.

# 거사 불자들 마음의 '보물창고' 열다

## 한마음선원 본원 법형제회 11월 8~9일 수련회 열여

한마음선원 본원 거사 불자 모임 '법형제회' 회원들이 모여 마음공부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가 열렸다.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은 11월 8~9일 경기도 양평 블루비스타에서 한마음 법형제회 수련회 '공생으로 한마음되는 법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본원 법형제회(회장 박종수) 회원 250여명과 주지 혜원 스님, 이사장 혜수 스님, 총무 혜복 스님을 비롯한 지도법사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입제식 및 주지스님 환영 법문 △황수경 박사의 주인공 리더십 특강 △한마음 마당놀이 △법형제회 장기자랑 및 발표 △마음밝히기 촛불제 △대행 스님 법문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첫날 주지 혜원 스님은 환영 법문에서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참석한 거사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법형제회는 한마음선원이 없어서는 안 될 신행단체"라며 "거창한 공부를 해야만 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재료가 되며, 공부는 지극하게 불붙고 늘어져야 한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마음의 보물창고를 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수 법형제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법형제회는 많은 수의 거사 불자들이 모이고 함께하는 한마음선원의 대표적 신행회"라며 "회원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서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을 나누고 재발심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0대 초반부터 80세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법형제 회원들은 1박 2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반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 주인공 리더십 특강 강연자로 나선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장은 마음공부를 통해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센터장은 "구급의 임원이었던 차드 맨탄은 가정으로서, 기업의 임원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 1990년 8월 대행 스님 가르침에 의해 발족 월 1회 법회 열며 선원행사 이끌어 "한 가정의 가장이 앞장서야 가정 화목" 리더십특강·마당놀이 등 열려

행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내면을 찾는 명상과 마음공부를 시작하면서 행복을 찾게 됐고, 지금은 사람에게 마음공부를 전파하고 있다"며 "집안의 가장이자 사회인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며 살아온 여러분들도 이제 강한 척, 착한 척, 있는 척 하기 보다는 '나'를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대장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음 마당놀이 시간에는 지도법사 스님과 회원들이 함께 손잡고 '강강수월래'를 배우며 흥을



법형제회원들은 수련회를 위해 준비해온 콩트, 7080메들리, 댄스, 장기모음 등을 사부대중에 선보였다.



아원에서 팀별로 축구, 축구, 피구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 회원들.



한마음 마당놀이 시간에는 지도법사 스님과 회원들이 함께 손잡고 '강강수월래'를 배우며 흥을 돋우었다.

돋우었으며, 아원에서 팀별로 축구, 축구, 피구를 통해 친목을 다졌다.

이어 법형제회원들은 수련회를 위해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콩트, 70·80메들리, 댄스, 장기모음 등을 사부대중에 선보였다.

평균 연령 68세의 나이를 잇는 회원들이 노래 '날리리 맘보'에 맞춰 건강체조를 하는가 하면, 40대의 젊은 남성 불자로 구성된 팀은 고갱이와 빨간 양말에 고무신을 신고 우스꽝스러운 댄스를 선보여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다양한 소품을 준비하고 분장까지 준비한 팀들도 있었다. 이들은 '야빠와 아들', '봉숭아 학당', '회장님 회장님 우리회장님' 등 모 방송사 개그코너를 패러디해 마음공부와 주인공 관법에 대한 내용을 쉽고 재밌게 다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회원들은 촛불제에서 '자성본래불' 정근을 하며 각자의 마음자리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에는 대행 스님 영상 법문을 시청하고 지도법사 스님과 담소를 나누는 뒤 회향했다.

수련회에 참가한 김범수(64) 씨는 "도반들과 모여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 프로그램도 알차고 의미 있었다. 각 팀별로 장기자랑 발표할 때는 환희심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법우들과 인연을 쌓을 수 있는 수련회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용우(49) 씨는 "1박 2일 동안 알차게 보낸 것 같다. 프로그램들이 매우 유익했고 스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음 법형제회는 거사 신행단체로서는 국내에서도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안양 본원을 포함한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전국 16개 각 지원의 법형제

회에 소속된 회원 수만 1,000명에 달한다. 안양 본원 법형제회는 500여 회원이 활동할 정도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법형제회는 1990년 8월 "한 가정의 가장이 앞장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진해야 가정 전체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발족했다. 현재까지 월 1회 정기법회를 열고 있으며 신원의 각 행사를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끌고 있다.

본원 법형제회는 정기법회를 비롯해 법형제회 내 24개 신행회에서 담당 법사 스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번 신행회법 모임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형제 합창단은 매주 합창 연습을 통해 신심을 증가시키고 매년 열리는 연동행렬에 참가해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대행 스님의 뜻에 따라 구성된 법형제회는 스님이 계실 당시에는 직접 법회를 주도해서 회원들이 활발한 신행활동을 했다"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회원분들이 결속을 다지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란다. 향후에도 정기적 수련회를 열고 나아가 각 지원 연합 법형제회 수련회도 기획해 거사님들의 신심이 고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종수 본원 법형제회 회장은 "선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적극적으로 앞장서 활동하는 법형제회는 한마음선원의 신행단체 중 단연 기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외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개최한 것은 5년만이다.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법형제회가 한마음으로 결집해 마음공부에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이은 기자

##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 신비의 돌부처님

### 부산자비선원

"어째서 이런 일이지...?"

말씀드리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즉신성불을 주시는  
신비의 칠여래부처님 부산자비선원에 나투시다!

미려가 금공하고 담담하신 불자님들은 자비선원으로 오셔서  
칠여래부처님을 진경하시고, 영험을 증득하십시오.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칠여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다보여래부처님 보승여래부처님 묘색신여래부처님 광배신여래부처님 이묘여래부처님 아미타여래부처님 감로왕여래부처님

- 다보여래부처님 : 입시·시험·고시응시생, 재판계류 해결
- 보승여래부처님 : 행복, 재물 축적, 백만장자의 지름길
- 묘색신여래부처님 : 취업, 승진, 결혼인연, 득남 발원
- 광배신여래부처님 : 부동산 매매·전월세, 계약체결 성사
- 이묘여래부처님 : 암·공황장애·우울증·병의 등 병고해탈
- 아미타여래부처님 : 극락왕생, 48가지 소원성취
- 감로왕여래부처님 : 건설·제조·사회복지 등 사업번창

칠여래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기 2558년 3월 25일경 진성 큰스님께서 새벽예불 끝나고 헌선 중 출연해 나타나신 큰 노스님이 주정자를 쥐신 채 보자기를 스님한테 내밀면서 "이것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배려 중생들에게 큰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진성 큰스님이 커다란 보자기를 받아두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루에 들은 돌이 갑작스럽게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그 후 청도 운문사를 기던 중 개국 입구에서 아주 불꽃을 뿜고 있던 단단한 돌을 발견하였는데, 이상한 기운이 돌에서 흘러 나오면서 석재공장에 맡겼다. 석장이 "스님 이 돌을 어떻게 하려 맡겼습니까?"하고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더니 스님은 "네모든 세모든 타원형이든 사각형이든 무엇이든 다들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10kg정도 되는 돌근 돌이 다들어져서 보내주셨다. 그렇게 해서 돌근 돌이 다들어져서 왔다. 그 돌을 신중리에 올려 놓고 다게물을 올리기를 하자 울기까지 하였다. 돌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급히 큰스님을 찾아 자초중생을 말씀드려 큰스님 녀석 돌려주고 하자 공백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고 놀라시며 잠시 좌정을 하셨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돌이 변한 원인을 돌인가 보지?"라고 하시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셨다. "왜 이렇게 신기한 현상을 발휘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시면서 경전과 각종 문헌을 찾아보시더니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이 화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큰스님께서는 묘색신여래부처님과 같은 대좌를 하시면서 용담을 주고 받으시며 내 부처님의 용담을 받고 오여래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부처님도 모두 용담을 받게 되어 마침내 칠여래부처님이 화현한 도량으로 필뫼를 맺었다.

큰스님은 "현재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일곱 분의 부처님이 오신 것이다. 첫째 다보여래부처님, 둘째 보승여래부처님, 셋째 묘색신여래부처님, 넷째 광배신여래부처님, 다섯째 이묘여래부처님, 여섯째 아미타여래부처님, 일곱째 감로왕여래부처님이다. '하시며' '이 모두를 칠여래부처님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부산자비선원**

문의 및 접수(단체예약도 받습니다.)  
Tel : 051) 633-8445~7  
Fax : 051) 634-8446  
http://cafe.naver.com/jbsw8445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정고개로 93번길 41(원현동)  
문현동 배정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엘리베이터 이용  
• 버스 : 68, 23, 26, 134, 남구3 /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친견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